

	<h1>보도자료</h1>	<p>2022.02.09.(수)</p>
<p>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 담당 : 이건상 팀장 (010-2652-2371)</p>		

세무사단체- 직능본부 '세무사법 전면 개정' 정책 협약

오늘 민주당사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와 상호 협력 구축
 회원 세무사 1만3,000명 이 후보에 원군... 김병욱 직능본부장 “예우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세무사단체가 9일 세무사법 전면 개정 추진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세무사단체는 소속 회원 세무사가 1만 3,000명에 달하는 현장 전문가 조직인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황성훈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과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세무사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국가 재정조달과 세무행정 협력자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검증제 등 성실납세와 세무사 역할 증대를 골자로 한 세무행정 신체제를 구축”기로 합의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황성훈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들의 수고와 역할을 인정하고, 납세자와 국가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할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 추진력을 믿는다”며 “다음 정부의 숙제인 국가 재정 수요 확보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직능본부장(재선 국회의원 분당을) 은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기장과 세무 신고를 대부분 대행하고, 조세수입 340조원의 성실 납세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세무사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면서 “경제와 가장 민감한 세무사를 위해서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전문가 이재명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현장 사진



사진 :: 한국세무사고시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세무사단체와 선대위 직능본부는 9일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세무사법 전면 개정 추진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세부분의 : 구재이 직능본부 부분부장(세무사) 010-3894-1999